

전남도, 독일 연구소와 직류산업 에너지 기술 개발

공동연구 협약...나주 직류산업 글로벌 혁신 규제자유특구 조성 예정 한국판 K 에너지밸리 구축...14조원대 글로벌 시장 선점 적극 지원

전남도가 독일 프라운호퍼 실리콘기술연구소(ISIT)와 직류 산업 전력기자재 개발 공동 연구에 나선다. 직류(Direct Current, DC)는 방향이 일정한 전기의 흐름을 말하며, 양극과 음극이 고정돼 있으며, 교류(Alternating Current, AC)는 이 반대다. 오는 2029년에는 직류 산업 시장이 14조 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나주 일원에 12.1㎢ 규모의 직류 산업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할 방침에 있어 이번 업무 협약으로 세계 최초 직류 전력망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남도와 (재)녹색에너지연구원, 공동연구개발(R&D) 참여 기업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전남도 대표단은 지난 1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독일 슬레스비히홀슈타인주를 방문해 프라운호퍼연구

소와 미래 전력망 구축을 위한 직류산업 공동연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 독일은 2045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주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고 다수의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업무 협약은 프라운호퍼연구소, 킬 대학교 연구진과 전남 8개 기업이 2년간 직류 전력기자재 실증 및 기술이전, 지식 공유 등 직류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 대표단은 이어 독일 재생에너지 수요 전망, 직류 전력기자재 기술개발 현황 및 안전관리 등 관련 전문가와 혁신특구 운영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벌였다.

업무협약에 앞서 킬 대학은 ▲ATC(Active Thermal control)를 통한 전류제어기능 강화 ▲



IOSP(Input-Series Output-Parallel) DC-DC 컨버터(직류 전압을 변압하는 장치)의 결합 관리 ▲Mashed DC 그리드 분석 및 제어 ▲DC 그리드에 대한 신재생에너지(WT 및 PV) 통합 분석 등 4개 콘텐트로 세미나를 개최해 양국 기업 간 1대1 기

술상담 매칭, 해외 공동 연구개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이번 독일과의 협력을 통해 직류 전력기자재와 배전망 운용에 대한 전주기 실증을 통해 한국판 케이(K)-에너지

밸리를 구축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SIT는 독일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자 유럽 최대의 응용 연구개발 조직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실버&조이 평생학습단 발대식 17일 오전 광주 동구와 조선이공대학교의 고령 특화 평생학습 '동구 실버&조이 평생학습단' 발대식이 서석동 이공대 기봉홀에서 열렸다. 발대식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의 동구 주민과 대학생들이 학습단의 성공을 바라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 위기임산부 안전 출산 돕는다

상담기관 '엔젤하우스' 지정 24시간 상담·보호출산 등 지원

광주시가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지원에 나선다. 광주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지역 상담기관으로 '엔젤하우스'를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엔젤하우스'는 남구 봉선동에 위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출산과 원가정 양육을 위해 상담전화 '1308'을 24시간 운영하고 상담·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 사례관리, 보호출산 등을 지원한다. '위기임산부'는 임신 중 여성(위기임부)과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위기산부)이 경제적 사유 등으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다. 위기임산부는 상담 후 엔젤하우스에 입소할 수 있고, 이후 원가정 양육 또는 보호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 위기임산부는 아동 양육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 따라 생계급여, 자녀양육비 등의 사회보장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생계급여는 2인 가구 기준 최대 117만원, 자녀양육비는 월 21만원 등이다. 또 '보호출산 신청 위기임산부'는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산전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이영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은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태어난 모든 아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 양육환경을 마련해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취업 원스톱 지원...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구직자 '문전성시'

동명·상무센터 2곳 운영 구직청년 2000명 발길 이어져

광주시가 청년 구직을 돕기 위해 마련한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이 입소문을 타면서, 청년 구직 상담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스테이션은 광주시와 고용노동부가 새로 추진한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로 동명센터, 상무 센터 등 2곳이

운영 중이다. 동명센터는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상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화-수-목은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30일 문을 연 동명센터에는 1700여명, 5월 31일 개소한 상무센터에는 30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곳에서는 지역청년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고, 맞춤형 일자리 종합상담, 구직 역량강화 프로그램, 전문 심리상담 등 청년 일자리 분야 원스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전문 심리상담과 취업워킹업, 경력(제)설

계, 창업-창직, 일상 활력지원 프로그램 등 청년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청년정책을 연계해 청년이 최종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 프로그램은 모두 무료이다. 권운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이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을 통해 마음을 회복하고, 개인의 역량을 강화해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여수 금오도·하화도·개도·묘도 섬 특성화사업 선정

10년간 200억 발전기금 마련

행정안전부 '섬 지역 특성화 사업'에 여수 금오도·하화도·개도·묘도, 4개 섬이 선정돼 10년간 최대 200억원의 섬 발전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섬 지역 특성화 사업'은 섬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섬마다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도약 발판을 마련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남 4개소를 포함해 경남과 제주 등 전국 10개소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속가능한 섬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10년간 4단계 지원 방식으로 이뤄진다. 섬 주민이 스스로 조직체를 구성하는 자율성을 보장해 섬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계획을 수립해 소득사업과 직결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박대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2026년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에도 큰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